



Scene 5. Tamatoa the Bottom Feeder.

마우이는 밤하늘을 향해 손을 올려, 자기 손의 곡선과 자신의 손가락 사이에 별이 오게 해 지침을 만들었다. 그것을 마치 지도처럼 읽으면서, 그는 별과 수평선 사이의 거리를 재었다. 그는 자신의 다른 손을 바다에 넣어 해류의 방향을 느꼈다. 모아나는 완전히 마음이 사로잡혀, 그가 어느 길로 갈지 알아내는 것을 지켜보았다.

“우리는 동쪽으로, 타마토아(Tamatoa)의 은신처로 갈 거야.” 마우이가 말했다. “만약에 누군가 내 낚시바늘을 가졌다면, 그건 그 욕심에 눈을 빛내는 밑바닥 인생일 거야.”

강하게 한 번 끌어당겨서, 마우이가 돛에 바람을 가득 받았고 배가 핵 움직이며, 모아나가 꼭 붙들게 했다. 마우이는 돛을 이리저리 흔들더니 빠르게 매듭을 묶었다.

흥미를 느끼며, 모아나는 그의 모든 동작을 지켜보며, 몹시 배우고 싶어 했다. “나에게 항해하는 법을 가르쳐줘.” 그녀가 그의 얼굴에 바짝 붙어서, 말했다.

“바닷길잡기야, 공주님. 내가 하는 일은 바닷길잡기라고 불러, 그리고 그건 그냥 돛과 매듭이 전부 아니야; 그건 네 마음속으로 네가 어디로 가는

지를 보고...네가 다녀왔던 곳에 대한 경험을 통해서 네가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것이지....”

“좋아, 우선, 공주가 아니야. 난 족장의 딸 —”

“그게 그거지 뭐.”

“아니 —”

“만약 여자아이들이 네 옷을 입고 싶어 한다면, 네가 공주님이라는 거야 — 너는 바닷길잡기 여행자가 아니야. 너는 절대로 바닷길잡기 여행자가 될 수 없을 거야. 너는 바닷길잡기 여행자가 될 수 없을 거라고.” 마우이는 자신이 마치 세 개의 다른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말했다.

마우이가 모아나를 들어 올렸고 그녀를 화물칸에 헤이헤이와 함께 넣었다. 그때 바다가 카카모라의 독이 든 화살 가운데 하나를 뺏어냈고 그것은 정확히 마우이의 엉덩이에 꽂혔다.

“이러기야?” 마우이가 바다에게 말했다. “입으로 부는 화살 총을 내 엉덩이 볼기쪽에 쏜 거야?”

마우이가 털썩 하고 갑판으로 쓰러졌다. 그의 머리를 제외한 모든 곳이 마비되었다. 모아나가 미소 지었다.

“넌 나쁜 사람이야.” 자신의 얼굴이 배의 바닥에 짓눌린 채, 마우이가 말했다.

“네가 말을 할 수 있다면, 넌 가르칠 수도 있겠지.” 모아나가 말했다. “바닷길잡기 수업, 제1과...시작해.”

마우이가 항의하듯 툭툭거렸다.

“마룻줄(halyard)을 풀어.” 마우이가 말했다. 모아나가 밧줄을 하나 골라서 그것을 풀기 시작했다. “그 마룻줄이 아니야.” 마우이가 통명스럽게 말했다. 그녀가 다른 줄을 골라 보았고, 마우이가 말했다. “아니야.” 그녀가 선택한 각각의 줄은 잘못 고른 것이었다.

잠시 후에, 모아나가 그녀의 팔을 위로 뻗었고 자신의 손을 하늘을 향해 올려 그녀는 별들을 읽으려고 했다. 그녀는 자신의 손을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제대로 이해해보려고 했다. “너는 별을 읽는 거지, 하늘에 하이파이프를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마우이가 넌더리를 내며 말했다. ~121

모아나가 자신의 손을 바다에 담갔다. “만약에 해류가 따뜻하면, 너는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 거야.” 마우이가 말했다.

“차가워.... 잠깐, 따뜻해지고 있어!”

마우이가 짙짙거렸다.

“웁, 더러워! 넌 도대체 뭐가 문제야?” 모아나가 말하면서, 물 밖으로 자신의 손을 획 빼냈다.

모아나는 밤까지 계속해서, 마우이의 지시를 따르려고 최선을 다했다.

다음 날 아침, 모아나는 그들이 아름다운 초록빛 섬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을 보았다. “우리가 여기 도착한 거야? 마우이? 봤지? 너한테 내가 할 수 있다고 했잖아!” 그녀가 흥분해서 말했다.

마우이가 코를 골았다. 그는 깊게 잠이 들어있었다. 모아나는 섬을 보았고 그것이 모투누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모투누이...하지만...난 집에 온 거야?” 그녀가 혼란스러워하며, 말했다.

그때, 바로 그녀의 눈앞에서, 우거졌던 섬이 검게 변하면서, 모든 것이 시들고 죽기 시작했다. 그녀는 섬이 악화되는 동안에 투이와 시나가 섬 위에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무서워하는 것처럼 보였고 그녀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지만, 그녀는 그들에게 갈 수가 없었다.

모아나가 벌떡 일어났고 자신의 숨을 가다듬었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면서, 그 모든 환상이 단지 나쁜 꿈에 불과하다는 것을 다행스럽게 여겼다.

“네 미용을 위한 휴식은 잘 즐겼어?” 마우이가 비꼬듯이 물었다. 입으로 부는 화살 총의 효과가 마침내 떨어졌고 그는 다시 일어나 다닐 수 있게 되었다. “진정한 바닷길잡기 여행자는 절대로 자지 않아, 그래야 그들은 자신들이 가야만 하는 곳에 실제로 갈 수 있으니까.”

커다란 바닷새가 머리 위로 날아가며 꺽꺽거리면서, 모아나와 마우이의 관심을 사로잡았다. 그들은 푸른 하늘로 뻗어 있으면서 거대하며, 우뚝 서 있

Chapter 14



마우이는 자신의 손을 하늘로 올려 별을 읽었고, 모아나도 또한, 그녀의 손을 올렸다. 마우이는 그녀의 팔을 약간 더 높게 올려, 딱 알맞은 위치에 놓아서, 그녀에게 방향을 읽는 올바른 방법을 알려 주었다.

달무리(moon bow)가 위에서 환하게 빛났고 바다는 그들의 작은 배를 밤중으로 이동시켰다.

마우이에게서 약간의 도움을 받아, 모아나는 길을 이끌며, 별과 달을 이용해 방향을 읽을 수 있었다. 그는 그녀가 얼마나 잘하는지에 대해 자랑스럽게 여겼고 그녀가 훌륭한 바닷길찾기 여행자가 되는 길로 잘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했다.

새벽이 되었고 밝은 태양이 수평선 위로 떠오르자, 마우이는 배의 돛대 위 높은 곳에 앉아서, 실안개 사이를 내다보았다. 그는 잠시 모아나가 배를 이끄는 모습을 지켜보며, 그녀의 기술을 인정했다. 그리고는 그는 다시 바다를 내다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모아나를 돌아보았고 미소 지었다.

“왜?” 모아나가 호기심을 느끼며 물어왔다.

“내가 알아냈어.” 마우이가 환하게 웃으면서, 말했다. 그는 배의 갑판 위로 뛰어내리며, 커다란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두 발로 착지했다. “바다는 내가 섬

Scene 6.

을 끌어 올렸을 때 좋아했었지...왜냐하면 네 조상들이 그녀의 바다를 향해
해 그것들을 찾아가기 때문이었어. 그 모든 새로운 땅...사람들...그것들을
모두 연결하는 것이 바로 바다였지. 그리고 만약 내가 바다라면, 나는 곱슬
머리의, 공주가 아닌 사람이 그 일을 다시 시작하기를 기다렸을 거야.”

“그건 네가 이제까지 나에게 해준 가장 좋은 이야기야.” 모아나가 말했다.
“아마 넌 그런 말을 테피티를 위해 아껴둬야 할지도 몰라.” 그녀가 장난스럽
게 덧붙였다.

마우이가 미소 지었다. “나는 그랬어.”

마우이가 배 밖으로 손짓했다. 실안개가 걷히기 시작하면서, 모아나는 저
멀리에 있는 무언가를 보게 되었다. 바다의 출렁이는 큰 물결 너머로, 그녀
는 물 밖으로 솟은 뚜렷한 원형을 이룬 섬들의 모습을 알아볼 수 있었다. 그
것들은 테피티로 가는 길에 있어 장벽을 만들었다. 그 위대한 섬의 여신은
그것들의 보호 속에서 쉬고 있었다. 모아나는 믿을 수가 없었다...그들이 결
국 해낸 것이었다.

“모투누이의 모아나, 난 네가 공식적으로 위대한 바다를 건너 마우이를 데
려다주었다고 믿어.” 마우이가 말했다. 그러더니 그는 미니 마우이에게 돌아
서서 말했다. “박수를 부탁해.”

미니 마우이가 환호했고, 문신 그림들의 무리가 위아래로 움직이는 동안
마우이가 사람들이 외치는 소리를 따라 했다. “하아아아...모아나아아아...당
신은 정말 대단해요.”

모아나가 빙그레 웃었고, 그 두 사람은 자랑스러워하며 서로를 바라보며,
자신들이 얼마나 멀리까지 왔는지에 대해서 좋은 기분을 느꼈다.

“때가 되었어.” 마우이가 말하며, 자신의 손을 그녀에게 내밀었다.

모아나가 그녀의 조개껍데기 목걸이에서 테피티의 심장을 꺼내자, 귀청이
터질 듯한, 아주 높은 음의 소음이 침묵을 깨었다. 연기와 화산재 구름이 생
기기 시작했다.

모아나는 그에게 심장을 건넸고 말했다. “가서 세상을 구해.”

마우이는 심장과 자신의 마법 낚싯바늘을 가졌다. 그러더니 그가 매로 변신했다. 자신의 강한 날개를 펴덕거리면서, 그는 빠르게 장벽 섬 주변의 거친 바다를 향해 날아갔다.

모아나가 그를 응원했다. 그가 화산재 기둥으로 다가가자, 무시무시한 열굴이 구름 사이로 나타났다: 바로 테카였다. 녹아내리는 용암 괴물이 괴성을 지르고 분노로 날카롭게 악을 쓰면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냈다. 그것은 산처럼 크기가 컸고 그것이 움직이자, 하늘에 닿을 듯 자라났다. 테카는 용암을 똑똑 흘렸고 지구의 내부 힘으로 만들어진 불로 번쩍었다. 그건 두려운 모습이었다.

“마우이....” 그녀의 몸이 공포로 딱딱하게 굳으며, 모아나가 말했다.

마우이가 심지어 반응하기도 전에, 테카가 그를 세게 내리쳤고, 그의 힘이 오작동했다. 그는 그것을 이겨내고 더 높이, 더 높이 날아갔다. 테카는 녹아내리는 용암 주먹을 들어, 흥포하게 한 번 휘둘러서, 마우이를 때려 하늘에서 떨어뜨렸다.

“안 돼!” 모아나가 비명을 질렀다.

마우이가 바다를 향해 고꾸라지자, 모아나는 그녀의 뜻에 가득 바람을 받았고 빠르게 달려가 그를 잡으려고 했다. 마우이가 바다에 강하게 떨어졌지만, 모아나가 그 옆을 지나 배를 몰면서 그를 낚아채 올릴 수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노를 향해 뛰어갔고 장벽 섬 사이의 틈을 향해 배를 조종하기 시작했다.

“뭉-뭉하는 거야?” 마우이가 혼란스러워하며, 물었다.

“너에게 들어갈 수 있는 더 좋은 길을 찾아주는 거야!” 그녀가 말했다. 그녀는 누비듯이 배를 회전시켜 나아갔고 장벽 섬 사이를 뚫고 나가기 위해 줄을 맞춰 섰지만, 테카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다.

“우리는 지나가지 못할 거야!” 마우이가 외쳤다. 그는 노를 붙잡았고 카누를 통제하려고 했다. “돌아가! 멈춰! 모아나, 멈추라고!” 그가 소리쳤다.

단단히 마음을 먹은, 모아나는 그의 말을 무시했고 계속 배를 몰아가며, 그

~ 712 ~

들의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전력을 다했다. 테카는 그들에게 점점 더 가까워지며, 점점 더 빠르게 달려왔다. 그 괴물이 몇 피트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을 때, 마우이는 모아나를 밀어, 노와 함께 그녀를 옆으로 떨어뜨렸다. 하지만 그건 너무 늦고 말았다. 테카의 주먹이 그녀를 향해 내려오고 있었다. 마지막 순간에, 마우이는 자신의 낚싯바늘을 공중으로 높이 들어 올려 그것을 막으려고 했다.

테카가 마우이의 낚싯바늘을 내리치자, 거대한 충격파가 파문처럼 퍼져 나가면서 바다의 큰 물결이 모아나와 마우이를 후려쳐 테피티로부터 멀리 밀어냈다. 테카는 파도 위로 몸을 던지며, 그들을 잡으려고 했지만, 그럴 수 없었다. 그것은 마치 테카가 그 장벽 섬에 묶여 있는 듯했다. 거대한 조수가 밀려들면서 계속 모아나와 마우이를 이동시켰고, 그들이 압력 속에서 정신을 잃게 했다.

Scene 8.

하늘에 닿을 듯이 높은 파도가 모아나에게 보내졌고 그녀의 배에는 승산이 없었다. 그것은 전복되었고 모아나는 바다로 던져졌다!

바위들이 쏟아져 내리자, 모아나는 카누로 헤엄쳐서 갔고 그것을 뒤집으려고 했지만, 그녀는 그것을 끌어 올릴 만큼 충분히 힘이 세지 않았다. 테카가 주먹을 들어 강한 일격을 가하려고 했지만, 그것이 내려치기 전에, 큰 짹짹 거리는 소음이 났고 하얀빛이 번쩍였다. 거대한 매가 제때에 테카의 손을 쳐서 치웠다. 마우이가 돌아온 것이다!

그는 자신의 반신반인 모습을 다시 취했고 모아나에게 미소 지었다.

“마우이?” 그녀는 그가 자신을 돕기 위해 왔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하지만 네 낚싯바늘이...?”

마우이가 자신의 마법 낚싯바늘을 올렸고 그것을 사용해 그녀의 배를 다시 휙 뒤집었다. 그러더니 그는 미니 마우이를 보았다. “그래, 뭐, 우리는 네가 말한 것에 대해 이야기를 했지...글쎄, 재밌는 것은 말이야, 나는 오직 나만이 나를, 나답게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

그의 뒤에서, 테카가 다시 일어섰다.

“음-흠, 음-흠, 음-흠.” 모아나가 이야기를 마무리 지으려고 하면서, 말했다. “마우이, 있잖아...어, 마우이...”

마우이는 계속 자신의 감정에 대해 주절주절 말했다. “내게 버림받는 것과 자존감 문제가 있냐고? 그래, 있지. 또 잠재해 있는 약간의 자기에 문제와—”

“마우이!” 모아나가 비명을 질렀을 때 불덩어리가 그들 바로 옆으로 날아왔다. 테카가 위에서 위협적으로 도사렸다.

“맞아. 다른 시간에 하지 뭐—내가 네 뒤를 봐줄게, 선택받은 아이야. 가서 세상을 구해.” 마우이가 말하면서 그는 테카를 향해서 돌아섰다.

“마우이!” 모아나가 다시 외쳤다. “고마워.”

마우이가 진정성 있는 미소를 지으며 모아나를 힐끗 보았고 말했다. “천만에.”

깊게 숨을 마시며, 마우이는 자신의 힘을 쏟아, 매로 변신했고, 테카에게 날아갔다. 일단 그가 용암 괴물의 위로 올라가자, 그는 도마뱀으로 변신했다. “뜨거워-뜨거워-뜨거워-뜨거워-뜨거워!” 그가 괴물의 불타는 듯한 팔 위를 종종거리며 걸어가면서, 말했다.

~~자기 배의 키 앞에 굳건히 서서, 모아나는 뜻을 펼쳤고 용암을 피하며, 그녀가 전에는 해보지 않았던 방식으로 배를 조종했다. 모아나가 테피티에게 더 가까이 나아가자, 마우이는 그녀를 응원하면서 그는 테카의 손가락 사이로 슬쩍 빠져나갔고 그러더니 매로 변했는데....그것도 테카가 그를 쳐서 하늘에서 떨어뜨릴 때까지였다! 마우이가 장벽 섬의 땅에 떨어졌을 때, 그가 다시 반신반인으로 변하면서 그의 낚싯바늘에 있는 금이 커졌다. 하지만 그건 더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 마우이는 테카가 용암으로 된 공을 들고서, 모아나를 겨누고 있는 것을 보았고, 자신이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를 알았다. 그는 자신의 낚싯바늘을 휘둘렀고,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해서, 그것을 테카에게 힘껏 치며, 테카가 모아나에게 집중하지 못하게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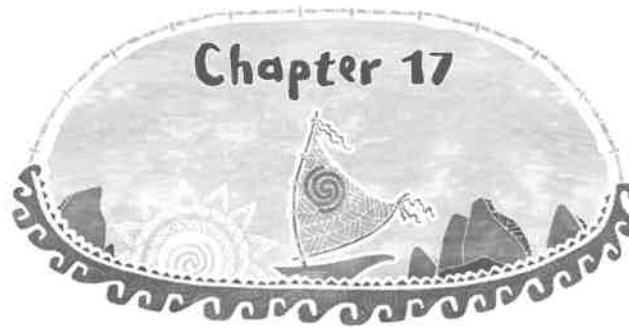
모아나는 자신의 배를 대었고 테피티의 해변으로 급히 달려가서 심장을 다시 놓으려고 했다. 눈부신 폭발이 그녀의 뒤에서 하늘을 밝게 빛나게 하면서 마우이는 우레와 같은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땅으로 세계 떨어졌다. 그의 낚싯바늘은 그의 옆에 있는 바위로 된 표면에 부딪혀서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다.

모아나는 언덕의 정상으로 가려고 재빨리 움직이다가, 갑자기 혼란스러워하며, 멈춰 섰다. 그녀는 얼굴을 찌푸리며 자신의 고개를 들어 절망적으로 주변을 둘러보았다. 무언가가 매우 잘못되어 있었다.

“안 돼....” 그녀가 자신의 가슴이 죄어오는 것을 느끼면서, 말했다. 그녀는 자신의 두 눈을 믿을 수 없었다.

그녀가 일어나리라고 기대했던 그 모든 일 가운데, 그녀는 이것을 결코 상상해보지 않았다. 언덕 너머에는 섬이 있었어야만 했지만, 대신에 그곳에는 비어있는 껍데기가...그 중심에 아무것도 없는 채로 있었다.

테피티는 그곳에 없었다. 단지 텅 빈 구멍만이 그녀 앞에 펼쳐져 있었다.
심장을 둘 곳이 아무 데도 없었다. “테피티...그녀가 사라졌어....”



마우이는 심지어 자신의 낚싯바늘이 없어도, 계속 테카와 싸웠다. “덤벼! 덤비라고!” 그가 용암 괴물을 향해 외쳤다.

더는 무엇을 해야 할지 확신할 수 없어서, 모아나는 자신을 진정시키려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고 자기 내면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녀는 돌아서서 테카가 마우이에게 위협적으로 다가서자, 그들 주변으로 사방에서 화산 번개가 번쩍이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때 그녀는 테카의 가슴에서 무언가를 발견했다. 은은하게 빛이 나는 나선이 식어가는 용암에 의해 덮여 있었다. 모아나는 자신의 어깨너머 테피티가 있었어야 하는 빈 구멍을 보았다.

“나선이....” 그녀가 말하면서, 자신의 손에 들린 심장을 내려다보았다. 그것의 은은한 빛은 그녀가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밝아졌고 그녀는 바다를 보았다.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 알았다.

테카가 강력한 주먹을 들어 마우이를 끝장내려고 할 때, 눈 부신 빛이 심장에서 나왔다. 모아나는 그것을 자신의 머리 위로 마치 점점 더 밝게 빛을 내는, 봉화처럼 들어 올렸다. 테카는 그 빛을 눈치챘고 시선을 그것을 향해 돌렸다.

“그녀가 나에게 오도록 놔둬.” 모아나가 바다에 말했다. 그리고 바다는 마

모아나는 무릎을 꿇었고 마우이를 잡아당겨 ~~그도~~ 역시 무릎을 꿇게 했다. 테피티는 모아나에게 감사함의 표시로 고개를 끄덕였고 모아나도 답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는 테피티는 마우이를 보았는데...그는 부끄러워하며, 어깨를 으쓱거렸다.

다시 시작
“안녕, 테피티. 그래서... 어떻게 지냈어...?” 마우이가 매력적으로 굴려고 하면서, 말했다. 테피티는 대단치 않게 생각하면서, 그를 바라보았고, 마우이는 자신의 발을 내려다보았다. “있잖아,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는...난 변명할 여지가 없어. 나는 나 자신을 위해서 그런 짓을 했고...그리고 미안해.” 마우이가 진지하게 올려다보았다.

테피티가 그녀의 주먹을 들어 올렸고 잠시 기다리다가 그것을 펼쳐 보였다. 그녀의 손바닥에는 마우이의 마법 낚싯바늘이 있었다. 마우이는 그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그것은 고쳐져 있었고 자신이 그것을 받았던 날처럼 아름답게 보였다!

“좋아! 야-호!” 그가 몹시 기뻐하며, 말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을 멈추고 그의 목소리를 낮추며, 계속 공손하게 굴려고 노력했다. “고마워, 어, 고마워... 네 친절한 행동을 정말로, 정말로 고맙게 여기고 있어.” 그가 작게 덧붙였다. “야-호!” 그러더니 그는 작은 곤충으로 변신했고 날아가 버렸다.

테피티는 모아나를 가까이 들어 그녀에게 코를 맞대어 하는 인사를 해주었다. 그녀가 모아나를 해변 위 마우이 옆에 내려놓고 섬 속으로 사라지면서 꽃이 그들 주변으로 사방에서 피어났다. 분홍색 꽃잎들의 바다가 공중에 넘실거리면서, 이제 완전히 수리되고 선명하고 아름다운 꽃으로 장식된, 모아나의 배가 모래 위로 빙글빙글 돌고 있었다!

마우이가 헤이헤이를 위해 새 모이를 뿌렸다. “네가 그리울 거야, 닭 다리야.” 그가 말했다. 헤이헤이는 모이를 먹으려고 했지만 놓쳤다. 마우이는 다정하게 미소 지었고 자신의 고개를 흔들었다. “절대로 변하지 말라고.”

마우이는 모아나를 보았고, 그들은 둘 다 이제 작별인사를 해야 할 때라는 것을 알았다. 모아나는 바다를 응시했다. “넌 우리가 함께 갈 수 있어, 알지.”

치 그 오랜 세월 전에 모아나가 유아였을 때 바닷가에서 그랬던 것처럼, 물이 빠지기 시작하고 갈라졌다. 그녀가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동안, 바닷물은 계속 갈라지며...테카의 장벽 섬까지 쪽 길을 열었다.

“모아나! 너 뭐 하는 거야?” 마우이가 외쳤다.

테카는 완전히 분노하여, 열린 길을 따라 모아나와 심장을 향해 빠르게 달려왔다! 하지만 모아나는 평온하고 의도적으로 테카를 향해 걸어갔다. 그녀는 분노하는 괴물을 똑바로 바라보았고 그것을 향해 차분하게 노래를 부르면서, 그것에 온전히 집중했다. 모아나는 그 괴물에게 여전히 그 내면 깊은 곳에 누구도 빼앗아가지 못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다. 그녀는 자신이 그 작은 목소리를 잃는 것이 어떤 기분인지를 안다고 설명했고, 그녀는 괴물에게 그 목소리를 들으라고 용기를 주었다.

테카가 모아나의 말을 들으면서, 그 용암 괴물은 조용해지고 차분해졌다. 곧 그것은 모아나의 발 옆에 누웠다. 모아나는 손을 뻗어 테피티의 심장을 테카의 가슴 위에 있는 나선에 끼워 넣었고 속삭였다. “당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어요.”

테카는 자신의 두 눈을 감았고, 갑자기 그것의 바위로 된 외부 표면이 갈라졌고 떨어져 나가면서, 아름답고, 평화로운 초록색 얼굴이 드러났다. 테카가 바로 테피티였다! 선명한 색의 꽃과 잎으로 된 왕관이 테피티의 머리 주위로 피어났다.

마우이는 완전히 충격을 받아서 테피티가 일어서고 바다가 모아나를 공중으로 들어 올리는 것을 지켜보았다. 어떤 경고도 없이, 마우이도 바다에게 붙들려, 아래로 빨려 들어갔고, 해변으로 끌려갔다. 그는 모아나의 바로 옆에 놓였다. 바다는 그다음에 헤이헤이를 데려왔고 그를 또한, 그들 옆에 놓았다.

“닭이 살아있어!” 마우이가 헤이헤이를 보면서, 외쳤다.

땅이 우르릉거리는 소리를 내었고 흔들리면서 테피티는 자신의 손으로 모아나와 마우이를 자신의 얼굴이 있는 곳으로 올렸다.

그녀가 말했다. “내 마을 사람들은 숙달된 바닷길잡기 여행자가 필요할 거야.”

“그들에게는 이미 그런 사람이 있어.” 마우이가 말했다.

그가 미소 짓자 새로운 문신이 그의 심장 위로 나타났다. 그것은 자신만만한 바닷길잡기 여행자인 모아나의 그림이었다. 미니 마우이가 모아나에게 미소 짓더니, 그가 있는 특별한 하늘 문신으로 올라가 편안하게 자리를 잡았다.

모아나가 팔쩍 뛰어 마우이에게 크게 포옹했다. 그들이 떨어졌을 때, 마우이는 자신의 낚싯바늘을 강하게 휘둘렀고, 돌진해 매로 변신했다. 마지막 미소를 지은 뒤, 그는 하늘로 날아올랐다.

모아나는 자신의 돛을 끌어 올렸고 이제는 형형색색으로 물든, 테피티의 섬을 활쫓 돌아보았다. 그녀는 자신의 노를 물속으로 담가 바다로 나아갔다.

2
E

